

## 얼음 깨기

## 고통

## 교회행사

예레미야애가를 읽노라면, 너무 처참한 현실에 감당 못할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개인적 아픔으로, 대형 참사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속에 친히 들어오시며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그럼으로써 우리 고통에 존엄을 부여합니다.

- 당신이 겪은, 혹은 겪고있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눠보세요.

## 10월

13-16일 김형국목사와 함께하는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20일 2025 더비기닝 선교학교  
24-31일 세례 문답 공부  
26일 교사 컨퍼런스

## 11월

2일 세례문답식  
3일 세례식, 신임투표  
10일 성찬식  
마하나임, 트리니티 찬양예배  
17일 추수감사주일

## 경배 찬양

##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 오 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 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3.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 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후렴. 오 신실 하신 주 오 신실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 하신 주 나의 구주

## 선교

## [남윤정 선교사]

## 필리핀

- 다같이 교회가 자립, 자치, 자전할 수 있도록
- 다같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현  
지인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 다같이 교회 대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건축  
할 수 있도록
- 남윤정/김보희 선교사의 언어(따갈로그, 영어)  
진보와 세 자녀가 학업에 잘 적응하고,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소식

## 한 문장 큰 울림

## 1. 사역지원

나누어지면 가뭄습니다. 2025년 사역을 위한 사역지원 함께 마음 모아 주세요.  
\*날짜 : 11월 3일 주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1층 로비에 신청서와 신청함이 있습니다.

## 2. 더 비기닝 선교 학교

10월20일 주일부터 굿월센터 2층에서 시작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 3. 청빙인사

이득근 목사(김은선 사모, 아을, 아현, 아빈)가 청빙되어 부임했습니다.

## 4. 교사 컨퍼런스

교회교육 전문기관인 넥스트교회교육원이 교사들을 위한 교사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24.10. 26 오후 1:00 \*장소 : 더온누리교회 3층 레위의 장막

## 4. 세례식

11월 3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5. 청지기성경적재정교육(BFS)

하나님의 재정원칙들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기간 : 10월 28일(월) ~ 12월 23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9시  
\*접수마감 : 10월27일(주일)까지 선착순 마감 \*문의: 김삼환 장로(010-9660-0386)

인생은 돌이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앞을 보고 살아야 한다.

- 쇠렌 키르케고르 -

**[애2:17]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공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슬픔과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그리고 인간의 회개와 신앙의 본질을 다룬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비탄으로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고 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애가의 구조는 매우 특징적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2, 4, 5장은 각각 22절, 3장은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시작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예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을 체계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감정과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또한, 각 장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면서도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건의 복잡성과 그 영적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예레미야애가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도시의 파괴, 그로 인한 백성들의 극심한 고난, 무엇보다 영적 황폐화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제시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가 심판의 원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나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나 도전은 무엇이며, 예레미야애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예레미야애가의 적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가나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와 갱신을 추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사회 불평등, 전쟁과 갈등 등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애가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는 오늘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고난과 슬픔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더불어, 예레미야애가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극단적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를 경계하고,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애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깊이 있는 묵상과 적용을 하게 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개인의 신앙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영적 갱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와 통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눔]** 예레미야애가에서 배울 수 있는 '고난 중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유지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 나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할 때 / 예레미야애가 2:11-22]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다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